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6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 준비를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한 세기가 바뀔 때마다 세상도 크게 변한다고 한다. '90년대를 21세기를 준비하는 연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아도 동구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의 북방외교 등은 '80년대만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 국내적으로는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이에 따른 준비 등 우리의 생업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은 미래학자가 아니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21세기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10년이 남은 것이 아니고 6년 정도 남은 것이 된다. 서력기원이라는 것이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예수 탄생이 BC 4년 이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GATT의 BOP를 졸업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실제적인 21C의 시작과 같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양돈업계도 앞으로 6년 남은 21C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은 바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쇠고기수입개방 협상으로 새해를 시작

농림수산부는 '90년대의 첫 해를 시무식이 끝나자마자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농림수산부 대화의실

에서 쇠고기수입개방 협상으로 시작하였다. '90년대 우리 축산업이 얼마나 험로를 걸어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신구범 축산국장이 한국측대표가 되니 양축가들은 마음이 든든하게 생각했으며, 회의 결과도 301조에 의한 보복을 받으면 받았지, 쇠고기 수입개방은 절대불가라고 단호히 우리측 입장을 밝힘으로써, 당초 2일 예정이던 회의가 하루로 끝나고 말았다. 더군다나 신구범국장은 우리가 만일 301조 보복을 받으면 우리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중단해서 보복으로 대항하겠다는 의사전달은 축산인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시원한 결단이였다.

그러면서도 양축농가들이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4당의 후보들이 이와 비슷한 공약을 하였지만, 그후 결과는 엉뚱하게 전개되어 나갔기 때문이다.

12월 12일 미국 상하의원 보좌관과 대외무역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농민대표와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필자도 참여하였는데, 그들의 대한 무역에서 전술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기 힘들구나 하는

신구범축산국장이 연초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개방협상에서 301조에 의한 보복을 받으면 받았지, 쇠고기 수입개방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단호히 밝힘으로써 축산인들의 체증을 내리게 했으나, 양축농가들이 안심을 못하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의 4당 후보공약을 알기 때문이다.

것을 느꼈다.

미국이 무역수지 역조가 우리보다 큰 일본이나 대만보다 우리에게 압력을 더 강화하는 이유나, 쇠고기의 경우도 개방하면 호주·뉴질랜드·캐나다보다 경쟁력이 뒤져 판매도 못할 것을 왜 물고 늘어지는지? 우리 양축가와 무슨 살풀이라도 할 것이 있는 것인지? 또한 자유무역 발전을 위한 것이면 왜 한국산 철강·신발·섬유류 등에 대해 쿼타 등 각종 규제를 하는지? 그러면서도 우리의 쇠고기 수입쿼터제도를 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쇠고기 수입판매가 변하고 있다

축산국장의 단호한 쇠고기수입개방 불가에도 몇가지 국내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첫째, 수입육의 한우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해 동시판매점을 모두 없애고 수입육 전문 판매점을 둔다는 것이다.

현 2,791개의 동시판매점중 한냉·축협대리점 734개소 정도가 전문판매점이 될 것이고, 이 숫자는 결국은 현재의 동시판매점 숫자에까지 육박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수입쇠고기 포장육만을 취급할 때 자기들의 소득을 위해서 수입쇠고기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고, 이들이 별도의 협회나 조합을 만들어 수입쇠고기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축산물유통사업단은 쇠고기

를 더 많이 수입해서 공급해야 한다.

밖으로는 미국의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과 안으로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의 쇠고기수입량 증가압력으로 양축가는 샌드위치의 신세가 될 수 밖에 없어진다.

둘째는 한국무역진흥공사 워싱턴 사무소와 미국의 쇠고기수입협상 보도이다.

이제 민간기구 등을 통해서 호텔용·고급 식당용은 자유로이 쇠고기를 수입하게 해서(축산물유통사업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손님이 값싼 호텔의 갈비부페로 몰리게 되면 일반 음식점들도 쇠고기수입개방 압력단체가 될 것이고, 소비자단체들도 들고 일어날게 아냐는 발상이다.

이 문제는 최근 기독교 단체, 농민운동권 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한 모임을 갖는 등 부산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생산자 등 범국민적으로 대처해도 지난번 양담배 수입에서 본 것처럼 큰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시 된다. 지난해 칼라힐스(USTR)대표 방한시 호텔용쇠고기 수입개방 양해라는 보도가 있었고 보면 간단히 생각하기 어렵다.

셋째, 금년은 그러저럭 버티지만 '91년 4월 제2차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발표때 미국의 주요 관심 품목을 발표할 것이란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엘리엇가 모든 사람들이 녹음이 우거지는 4월을 찬미할 때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한 것은 한국의 농축산인에게는 공감이가 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8일의 243개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또 무엇이 포함될지 두려운 것이다.

이제 결단의 시기가 왔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양돈인의 노력에 따라 아직도 30% 정도 대폭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화란이나 덴마크처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느냐, 아니면 일본처럼 적당한 양만 자급하느냐, 아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맡겨 둘 것이냐 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21세기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말처럼 힘차게 달려나가야 된다. **■**